

“사회복지가 곧 보현사상 실천”

성운 스님 등 학자들, 7일 정토헌회 세미나서 역설

사유하여 발원하옵나니, 나는 이 세간의 등불이 되어 부처님의 공덕을 구족하고, 심력으로 일체제해를 갖추어 일체 모든 중생의 탐진치의 치성한 불꽃 내 마땅히 해탈케 하며, 악도의 모든 고통 소멸케 하리.

이와 같은 서원을 발하여, 견고하여 물러남 없이 보살의 행을 두루 닦아서 열가지 결립없는 힘 얻으리.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대승불교정신을 가장 잘 나타내는 보현행원 사상,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보현보살의 행원과 사회복지와의 접점을 모색하고 불교사회복지가 나아가 할 방향을 찾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정토헌회(회장 성운)는 5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보현보살사상과 사회복지’를 주제로 제 16차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보현사상, 민중 의지처 돼

보광 스님은 ‘보현보살 사상과 한국 아미산 장승신앙의 융합’ 발제에서 보현보살이 의의가 발달하기 전 민중들의 의지처가 됐다고 말했다.

먼저 스님은 “보현행원 사상은 상구보리를 행원을 통해 하화중생을 실천하는 것”이라며 “아무리 훌륭한 깨달음을 성취하더라도 중생에 회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현행원에 대해 설명했다.

보광 스님은 이어 중국 아미산 신앙과 보현보살 사상이 합쳐져 한국에서 펼쳐졌다고 주장했다.

보광 스님은 “중국 아미산에서 천연두를 막는 신인 천보선량(天?仙娘)이 있었으며 현대의 중두병과 큰 차이가 없는 방두법을

보급했다. 천보선량을 보현보살의 화현으로 보았는데 이런 아미산 신앙이 17~19세기 유포돼 한국에도 아미산으로 불리는 곳이 110여 곳에 달했다”고 말했다.

보광 스님은 “한국의 경우 전통문화와 융합해 장승을 세우며 안병을 기원하는 신앙으로도 발달했다. 결국 보현보살신앙이 장승신앙과 융합돼 믿어졌으며 이는 왕궁인 경복궁 안에도 아미산이란 가산을 만들 정도로 널리 성행했다”고 소개했다. 보광 스님은 “이런 아미산 신앙이 일본으로도

‘보현보살 사상과 사회복지’ 주제 “불교 복지”는 정토헌회 공생운동 “복지는 곧 포교”에 한 목소리

건너갔다. 1825년 일본 니가다현에서 발견된 아미산 장승에 대해 일본에서는 중국 아미산에서 온 것으로 보나 이는 한국 장승”이라고 말했다.

‘보현행원과 아동복지’ 방향 제시

이에 앞서 ‘보현사상과 아동복지’를 발표한 황옥자 명예교수는 “대자비심을 발원하는 보살은 수행자이며 사회실천가”라며 “아동복지사가 기본적으로 지녀야 할 인품 또한 보살의 자비심”이라고 말했다.

황 교수는 또 “보현보살이 부처님의 가피를 중생복지를 위해 아낌없이 회향했듯 모든 아동도 언젠가는 자신이 받은 혜택을 다른 사람에게 회향 할 것”이라며 “보현사상에 입각한 아동복지는 모든 존재를 부처님 같이 존중하고 신뢰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보살행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도록 길라



정토헌회장 성운 스님, 동국대 교수 보광 스님, 황옥자 동국대 명예교수



5월 7일 세미나에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잡이하는데 맞춰져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범종단 복지 기구 창설 제안

성운 스님은 불교사회복지를 전담하는 범종단 기구 창설을 제안했다. 성운 스님은 “한국불교와 사회복지” 발제에서 종단 협 산하에 ‘한국불교복지재단’을 설립하고 각 종단간 사회복지 사업의 상호연계체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운 스님은 “사회복지에 대한 불교계 기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각 종단이나 사찰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복지법인을 총괄하는 단체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범

종단 기구 내에는 전문인력양성 교육기관 및 복지연구원 등을 마련해 통합 네트워크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또 “보현행원은 자비사상의 실천이기에 사회복지와 맞닿아 있다”며 “불교 정토 건설, 행복이란 공생운동으로서 불교 사회복지를 펼치는 것은 결국 포교이념과도 같다”며 불자들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신규탁 연세대 교수의 ‘보현행원론에 입각한 의례 실행’, 김중진 동국대 불교학술원 조교수의 ‘보현심원가의 비평적 해석’ 등 주제 발표가 있었다. 노덕현 기자

김정배 가산硯 이사장, 문화재위원장에

임기 2년, 문화재청 위원장단 새로 선출

김정배(74·사진)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이사장이 5월 7일 문화재청 제26대 문화재위원장에 선출됐다. 임기는 5월 1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 2년이다.

김정배 위원장은 1940년 8월 1일생으로 서울 휘문고와 고려대 사학과를 졸업했다. 고려대 사학과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미국 하와이대학 대학원 인류학과에서 수학했다.

고려대 제14대 총장을 역임하기도 한 김정배 위원장은 1970년부터 2005년까지 고려대 한국사학과 교수로 있으면 후학을 양성했다. 이밖에도 미국 하버드대학 연경(燕京)학회 객원교수(1980~1981), 국사편찬위원회(1982~2003), 고려대 서장캠퍼스 부총장(1990~1992), 러시아 연해주 발해 유적발굴단장(1992~1994), 한국사연구회장(1995~1997), 문화재위원회 문화재위원 및 한국암각학회 회장(1997~2001), 고려대 제14대 총장(1998~2002), 고구려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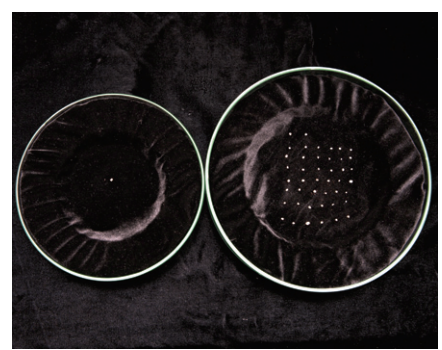
재단 이사장(2004~2006), 한국학중앙연구원 제14대 원장(2008~2011)을 지냈다. 현재 사단법인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이사장과 고려중앙학원 이사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한국민족문화의 기원》(1973) 《몽골의 암각화》(1993) 《한국 고대사 고고학》(2000) 《고조선에 대한 새로운 해석》(2010) 등이 있다. 노덕현 기자

불국사 석가탑 사리 45과 추가 수습돼

국립문화재연구소, 사리장엄구 보존처리 결과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영원)는 4월 29일 불국사 삼층석탑(국보 제21호) 사리(舍利) 45과를 추가로 수습했다. 이번에 발견된 사리는 4월 2일, 2층 탑신석(塔身石)에서 수습돼 문화재보존과학센터로 이송된 사리장엄구 속에 봉안돼 있던 것이다.

이로서 석가탑 사리는 총 46과가 됐다. 이날 과학적 조사 분석과 정밀한 작업을 통해 목제사리병에서 1과가 수습됐으며 유리제사리병에서 44과가 나왔다. 지난 4월 2일 은제사리호(銀製舍利壺) 내의 은제사리합(盒)에서도 1과가 수습된 바 있다. 이날 수습된 사리는 불국사 무실전으로



이관해 석탑 복원 후 재봉안하기 전까지 보관한다. 불국사 측은 현재 사리 건전법회를 통해 사리를 공개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대승불교 중생구제 정신은 ‘전법’ 통해 발현”

불광연구원, 5월 4일 대승불교 전법론 집중 조영

안성두 서울대 철학과 교수(사진)는 불광연구원(이사장 지홍)이 5월 4일 불광사 교육원 강당에서 마련한 ‘대승불교의 전법정신과 전법론’ 학술연찬회에서 전법정신 발현이 대승불교사상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초기 대승경자들의 전법정신과 전법론’ 발표를 통해 “부처님은 성도 이후 최초의 망설임 후에 전법선언을 하면서 가르침을 세상에 퍼졌다고 결심했다. 교법의 근본은 중생에 대한 연민에 있기에

그 연민의 마음은 부처님 가르침의 최고 위치를 차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이어 “대승보살도의 시작점인 열반과 여러 지혜 획득을 위해서라도 교법을 설하고 이끄는 전법행위가 보다 활발히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학술발표회에서는 초기대승 행자들의 전법 정신을 비롯해 ‘금강경’ ‘화엄경’ ‘법화경’ 등 대표적인 대승경전에 나타난 ‘전법론’이 집중적으로 분석됐다. 안 교수의 기초발제로 시작된 이날 학술연찬회는 △이영진 금강대 HK연구교수의

불교로 흘러가 교세가 약해지는 한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끝으로 “종교의 본질은 모든 생명, 대중의 행복구제에 있다”며 “궁극적인 열반과 여러 지혜 획득을 위해서라도 교법을 설하고 이끄는 전법행위가 보다 활발히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학술발표회에서는 초기대승 행자들의 전법 정신을 비롯해 ‘금강경’ ‘화엄경’ ‘법화경’ 등 대표적인 대승경전에 나타난 ‘전법론’이 집중적으로 분석됐다.

안 교수의 기초발제로 시작된 이날 학술연찬회는 △이영진 금강대 HK연구교수의



‘반야부 경전에 나타난 전법정신과 전법론’ △이병욱 고려대 교수의 ‘법화경에 나타난 전법정신과 전법론’ △석길갑 금강대 HK교수의 ‘화엄경에 나타난 전법정신과 전법론’ △한지연 금강대 HK교수의 ‘중앙아시아의 전법사들과 전법행’ 논문이 발표됐다. 노덕현 기자

해인사 고문헌 전수조사 들어간다

78년만의 사업, 불교학술원 2014년 4월까지 진행

합천 해인사 고문헌이 일제강점기 이후 78년 만에 전수 조사된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현각)은 5월 9일 합천 해인사와 고문헌 전수조사 협약을 맺고 2014년 4월까지 해인사가 소장한 불경과 문집 등 고문헌 600권을 전면 조사한다.

해인사 고문헌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는 일제강점기인 1935년 조선총독부의 문헌조사 이후 처음이다.

이번 조사는 불교학술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으로 실시 중인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사업의 일환으로 불교학술원

과 해인사는 조사결과를 아카이브 형식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측은 “1935년 조사는 소유 도서에 대한 파악 성격이었다”며 “각 도서가 가진 학술·문화적 가치를 재평가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한편,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같은 불교 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사업 일환으로 대구 동화사와 신둔사, 용연사, 파계사에서 고문헌 조사작업을 진행해 보물급 문헌 4책을 새로 발견한 바 있다. 노덕현 기자

[문화관광부 허가 제 2010-9호]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부처님 오신날



석가여래부처님 제 77세 청봉 석정산 대승사



종 정 청봉 석정산

(종정실 예경실장 : 석무량 / 종정실 사서실장 : 석보각)

원로회
고문 석홍섭
원로회장 석무공
부의장 석무겸 석만월

총무원
총무원장 석혜오
총무부장 석운오
재무부장 석법담
정보부장 석보각
행사부장 석지혜
사무총장 석초오

교구총무원
구미총무원장 석혜광
전북총무원장 석실산
마산총무원장 석법경
전남총무원장 석법진
진주총무원장 석덕오

승정원
승정원장 석원정

호계원
호계원장 석지원

중앙위원회
전국신도회회장 노세주
중앙무술위원장 엄태일
문화예술위원장 조치원

중앙총회
총회의장 석덕오
부의장 석월오

문화원
문화원장 석실산

중앙행정위원장 차정호
중앙정책위원장 박만석
중앙기획위원장 조길환

호법원
호법원장 석원명

감사원
감사원장 석지명
부원장 석법호

포교원
포교원장 석해광

감찰원
감찰원장 석만오

기획원
기획원장 석우암
부원장 석법승

교육원
교육원장 석보행
부원장 석대명
부원장 석운오
강원원장 석법오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 (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전동 656번지 불광사 총무원장(직) 010-3565-2462 혜오 원장 스님
총무원 070-4187-4747
종정예경실 055)364-4747

◆ 입종 안내 ◆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칠 나날 사찰 및 종도모임을 모십니다.

만약 본 총무원을 사칭하며 금품, 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총무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총본산 인터넷 주소 : www.dwbk.net

부산 제2 총무원

총무원 원장(직) 010-3565-2462
해광사(총무소) 051-505-2461
해광사(팩스) 051-516-2461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614-6
부산지부 제 2총무원 해광사

대원불교조계종 종립교육원 행자모집 중

종무소 051)893-3346
학장(直) 010-3564-6604 현우 법오
부산 진구 당갈1동 232-3 현우정사(백양대로 50-1호)